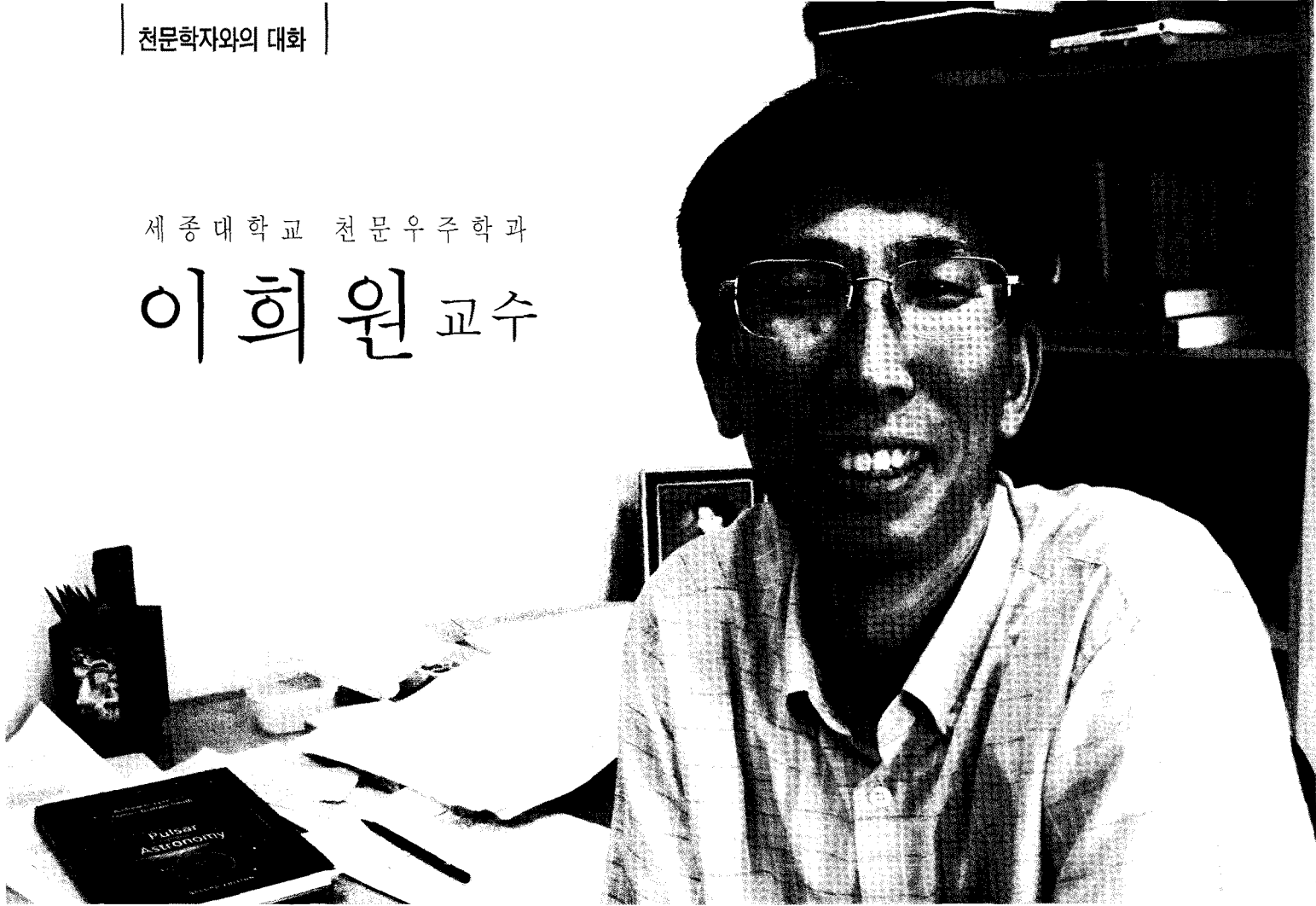


세종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희원 교수



비가 막 내릴 것만 같은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기로 유명한 세종대학교 이희원 교수를 만났다. 연구실은 한눈에 보기에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희원 교수의 차분하면서도 후덕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자리를 잡고 마주 앉자마자 관여하고 계시는 일 이야기부터 물었다.

“한국천문학회 재무 간사를 맡고 있어요. 강영운 교수님이 학회장을 맡고 계신데 저는 학회의 재무 관련 일을 좀 돕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사무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지요. 천문올림피아드 교육분과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유제 박사님이 실무적인 일을 거의 다 처리하셔서... 저는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이 교수는 세종대학교 우주구조와 진화 연구센터에서 개최하는 계절학교 일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된 대표적인 계절학교인 ARCSEC 계절학교에 대해서 물었다.

“센터 총무 일을 하면서 계절학교를 개최하는데, 좋아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가르치는 일이 즐거운 일이라 보람도 있고요. 센터 소장님인 강영운 교수님이 특히 대학원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수도권 큰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완성된 대학원 교육을 시킬 수가 있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나 지방 대학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원 커리큘럼을 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도 흩어져 있고 대학원 학생들도 흩어져 있으니깐 한꺼번에 모아서 강의를 하면 우리나라 천문학 대학원 교육에 좀 기

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번 개최를 합니다. 주로 석사 1, 2 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ARCSEC 계절학교는 항성천문, 은하천문, 천체물리, 특별토픽,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2년 주기로 같은 주제가 돌아오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별토픽 때는 주로 천체관측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2002년 12월 쯤 첫 계절학기를 시작한 이후 이번 여름까지 빠짐없이 진행해 오고 있어요. 힘들긴 해도 멀리서 찾아와서 강의 듣는 학생들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모두들 자랑스러워하고 있지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종대에는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없어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계절학기를 개최한 적도 있었는데, 숙식 문제는 잘 해결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 시설 같은 교육 인프라가 아쉽더군요. 달래마예요.”

이희원 교수는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천문의 해 행사의 한국조직위원회 실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과학문화 확산이라는 큰 틀에서 세계 천문의 해 사업을 봅니다. 이것도 결국은 교육의 연장이고 연구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기대 반 부담 반이에요.”

이밖에도 이 교수는 한국천문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희원 교수가 이렇게 많은 일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 교수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학교와

기관에서 일했던 인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경북대학교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 여러 곳에서 일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과 연세대학교를 거쳐서 세종대학교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해서 천문학계에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천문학계의 대부분의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학생들과 같이 작업했던 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의 생활이 특히 인상에 남는지 궁금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일단 그곳에서 처음으로 전공과목을 강의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도 너무 잘 따라주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람이 특히 컸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던 선생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큰 공부도 했었고요. 또한, 처음 관측천문학을 접한 곳이기도 하지요. 변용익 교수의 활동을 보면서 자신의 분야에 감히 말자고 생각했지요. 강용우 박사와 함께 처음으로 관측 제안서도 써보고 칠레에 가서 직접 관측도 해보았습니다. 마침 관측 결과가 좋아서 관측 논문도 한편 쓸 수 있었지요.”

이때의 경험이 큰 힘이 되어서 세종대학교에 와서는 관측을 주로 하는 다른 교수들과 협력 연구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동료들에게 이론을 토대로 한 관측 토픽을 제공하기도 한다. 천문학을 전공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다.

“학부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졸업하고 서둘러서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천체물리학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지요. 물리학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물론 물리 백그라운드가 크긴 하지만, 천문학이나 천체물리학은 너무 종합적이고 관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유명한 스승을 만나게 되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퀘이사의 통일 모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한 후에는 퀘이사 보다는 백색왜성 쌍성계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백색왜성 쌍성계 방출선 산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방법론적으로는 제가 했던 퀘이사 연구와 비슷해요. 원자물리학적으로 흥미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아주 현실적으로는 국내 시설인 보현산천문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이 쪽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천문학 교과서 번역도 하고 있다.

“강영운, 김용기 교수님과 함께 'Introduction to Modern Astrophysics' 제2판을 번역하고 있어요. 1차 교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천문학계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서 전공책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지요.”

이 교수의 고향인 천안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가족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봤다.

“마침 작년에 안식년을 맞아 스탠포드 대학교에 갔었어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는 목적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오랜만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마침, 집 앞에 풀장이 있어서 수영도 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도 3학년과 5학년 때여서 적당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늦게 집에 들어가고 하니 가족 모두와 함께 여유롭고 한가하게 모여 놀 시간이 없잖아요. 모처럼 넓은 세상을 보고 온 것 같아요.”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이 교수의 부인은 바이올리니스트이다.

“논문 쓰듯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연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고전은 좀 듣는데 현대음악은 도통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연주회를 합니다. 실내악단도 리드하고 있는데 이름이 셀레스켈 앙상블이에요. 이름에서 천문학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희원 교수는 무신론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천주교 신자이다. 결혼하면서 처가가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라서 성당에 같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내의 신앙을 존중하고 아내는 이 교수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문제로 다툴 적은 없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 실어 놓은 설문 한 구절을 인용해 이 교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인격신, 즉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자의 말을 듣고 응답하고 죄와 악행에 관심을 보이고, 판결을 내리는 신을 믿는다.' 강한 부정이면 1, 강한 긍정이면 7.

“요즘 마침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강한 부정이에요.”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을 맞아 이 교수 연구실을 찾아온 이정은 교수와 함께 어린이대공원 옆 서북면옥으로 이동했다. 마침내 더위를 못이긴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주인아주머니의 능숙한 자리 배치에 따라서 복잡한 냉면집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여섯 조각이 나온 왕만두 향도 좋았고 물냉면 면발 느낌도 쫄깃해서 좋았다. 특히, 육수 맛이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 돌아오는 길 내내 담백하면서도 끈끈한 뒷맛이 길게 이어지던 서북면옥 물냉면이 이희원 교수를 꼭 빼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